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구세주의 자격 요건

감람나무의 의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라 하면,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실패해서 마귀에게 포로가 된 다음 마귀를 6000년 만에 완전히 이기고 이제그대로 사방권을 이기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감람나무가 아무런 뜻이 없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고, 성경상에서는 하나님을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하나님도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하나가 된 것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점령했을 때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사람이 바로 신부로서 신부와 신랑이 결합된 것을 가리켜서 감람나무라고 하며 또한 완성의 이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그대로 오늘날 인류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가 죽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마귀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란?

성경에는 분명히 에덴동산을 잃어버린

다음 에덴동산을 회복한다고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요, 하늘나라이면서 에덴동산은 죽음이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우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그대로 한 번 세상에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는 바로 마귀 단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덴동산을 회복하는 데 있는고로 에덴동산은 죽음이 없는 동산이고로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 시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구세주라고 하게 되면 바로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오늘날 인류 사회를 바로 전쟁이 없는 사회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인간을 점령한 하나님이 바로 완성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는데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어둠속에 묻혀있고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친삼촌 노병삼(사진 우) 씨와 악수를 하는 구세주 조희성님

공산주의를 없앤 주인공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저절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공산주의가 74년 동안 공산주의자들 수심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자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이는 공산주의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완전히 공산주의 세계를 없애버리는 건 바로 이 세상 천지개벽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6공화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전서부터 누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걸 미리 말했던 것

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무개가 당선된다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친 삼촌 바로 노병삼씨가 우리 승리제단 찾아와서 자기 조카를 대통령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정도령이라는 이 자체만 알고 정도령이 나오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이제그대로 정도령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예언서를 읽은 사람이고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도령이 틀림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부하를 시켜서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슬이 내렸던 것입니다.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는 자가 정도령이요 감로해인을 들고 나오

는 그 정도령이 바로 이 세계를 마음대로 하고 천지개벽을 한다고 하는 말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병삼씨는 정도령한테 부탁만 하면 틀림없이 당선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장마 못 지게 하고, 계속해서 풍년 들게 하고, 태풍 못 불어오게 하고, 다 이 사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할 정도면 그게 보통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문만 열면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이제그대로 구세주를 통하여 은혜를 입으면 바로 반드시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췌값으로 죽는다."고 하였는데 췌값으로 죽는다면 죽은 사람은 천당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을 간다고 해야 말이 맞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의 지식 되는 인류를 전부 죽여가지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한테 충성을 하고 집을 팔아서 바치고 이제그대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전부 구름타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휴거란?

휴거라는 것이 뭐냐면 들려올라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휴거는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작전인 것입니다. 집 팔아가지고 몽땅 바치는 그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날아가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사기꾼목사들이 있으니 참말로 그게 바로 마귀새끼들이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시간시간이 논하지만 예수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라." 하는 말씀과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세주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자들이 처형을 받았나면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45절에는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세주가 안 나온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일점 일획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일점 일획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바로 구세주가 아니라라는 것이 뚜렷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1992년 8월 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형용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3장 야곱의 하나님》 (3) 라헬의 여종 빌하가 성령을 따라 '단'을 낳다

(3) 라헬의 여종 빌하가 성령을 따라 '단'을 낳다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얻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습니다. 두 딸 중에 라헬이 분처가 되는 이유는 이미 야곱과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이요 레아는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야곱의 첩이 됩니다. 첩이 되는 레아가 아들 넷을 얻었다는 말을 듣는 동안 야곱의 사랑하는 분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야곱 84세에 르우벤을 낳고 85세에 시므온을 낳고 86세에 레위를 낳고 87세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첩 레아 47세에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았습니다.

42세의 라헬은 언니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그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영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로다!" 하고 남편 야곱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나의 몸종 빌하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얻고자 하오니 허락하시어!"

창세기 30장

-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 4절: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 5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심판자)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너무나 격렬하게 호소하기에 야곱은 마지못해 허락하였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를 남편의 침소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생각하기를



빌하가 성령으로 아들 '단'을 잉태하다

'나의 아버지 이삭도 40세에 어머니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20년이 지난 60세에 첫 출산을 보지 않았던가! 지금 나의 아내 라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잠시 잉태하지 못하게 태를 막고 있을 뿐 언젠가 열어주시 거야!' 하고 자신의 침소에 들어온 빌하와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 년 후에 빌하가 성령을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88세의 야곱은 빌하가 자신과 상관없이 성령을 따라 아들을 낳은 이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였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일찍이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라헬, 당신의 여종을 나의 침소에 보냈지만 나는 빌하와 동침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낳게 될 아들에게 장자상속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지만 20년이 지난 60세에 성령을 따라 쌍둥이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조부 아브라함께서도 49세에 사리와 결혼하였지만 결혼한 지 51년 만에 성령을 따라 이삭을 낳으셨소. 그래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듯이 나 역시 100세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라헬 당신의 태를 열어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의 여종 빌하가 성령을 따라 아들을 낳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빌하에게서 난 아이는 라헬의 자식이니라. 장차 그 아이의 후손 가운데서 만민을 심판하는 주(主)가 나올지니 그 이름을 단(심판자)이라고 불러라.'라고 하셨소"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이 놀라운 일을 전혀 듣고 말하기를, "나의 몸종 빌하를 통하여 나의 아들을 얻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아들입니다. 야곱 당신께서는 단에게 장자축복을 하시되 언니 레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장자축복으로 인하여 당신이 형 에서를 피하여 고난을 겪는 일을 '단'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 '단'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당신이 빌하와 동침하여 당신이 낳은 아들을 나에게 주세요."

창세기 30장

-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야곱은 아내 라헬의 말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빌하에게 아들 '단'에게 장자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야곱 89세에 빌하는 아들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납달리도 자신을 낳은 생모 빌하를 유모라고 부르고 라헬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라헬이 몸종 빌하를 통하여 아들 단을 얻게 되자, 생산이 멈춘 레아도 몸종 실바를 야곱의 침소에 넣어 아들 것을 얻었습니다.



라헬 품에서 자라는 '단'

니다. 갖은 납달리와 같은 해에 낳지만 두 달 늦게 태어났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 90세에 아셀을 낳았습니다.

49세의 레아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야곱의 분처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동생 라헬에게 합환채를 지불하고 동생의 허락을 받아야 야곱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비로소 동생 라헬이 야곱의 분처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야곱이 라헬과 정혼한 사실을 무시하고 아전인수식으로 동생 라헬보다 먼저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본시 야곱의 분처는 자기 자신이지만 야곱이 자기 자신보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간주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 보리를 거둘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더니
- 라헬이 이를 알고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이 캐어 온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잠시 닫아두었던 레아의 태를 여시고 잉태를 허락하였습니다. 합환채를 라헬에게 지불하고 야곱과 동침한 레아는 아들 잇사갈을 낳았습니다. 잇사갈은 아셀과 같은 해에 낳지만 두 달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듬해 야곱 91세에 레

아는 아들 스불론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 93세에 레아는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아들 넷을 낳고 생산이 멈춘 언니 레아가 잇사갈을 잉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생산치 못하던 라헬은 언니 레아처럼 아이를 잉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남편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 91세에 라헬은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스불론보다 두 달 늦게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더 낳고 싶은 욕심에서 '그(하나님)가 더하시리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

-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더라

그 후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와 같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난산하고 죽었습니다. 밧단아람에서 떠난 지 10년째 야곱 107세요, 라헬 61세 때에 베냐민을 낳았던 것입니다.*안젤라

1 합환채(合歡菜, Mandrake): 이 식물의 뿌리가 사람의 하반신과 닮았다고 해서 고대로부터 임신을 돕는 약초로 믿어 왔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식물의 열매에 욕정을 일으키는 최음제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마귀의 사과나 무'라고 부릅니다.